

■ 교육

대학 조기 졸업의 장점과 단점

대학 생활이 꼭 4년일 필요는 없다. 4년보다 짧은 기간에 졸업하더라도 값진 기회와 추억들은 여전히 많다. 대학 생활을 짧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 크레딧을 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AP 시험을 패스하거나 IB 코스를 듣는 것. 또는 주변 4년제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이들 수업과 시험들은 대학 수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크레딧이 대학으로 이전돼 학사 학위를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취득한 대학 크레딧은 선택 과목 크레딧으로 사용되거나,

졸업에 필요한 대학의 필수 개론 수업의 일부를 시험으로 대체해서 면제받기도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대학에서 최소로 요구하는 수업보다 더 많은 수업을 듣는 것이다.

보통 학기당 12-13유닛을 들어야 하며 졸업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 130 유닛을 취득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학기당 14-18 유닛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평균 4개의 수업에 해당한다.

다음은 대학의 시작 단계에서 학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조기졸업 계획'을 짜는 것이다. 어드바이저는 내가 원하는 전공에서 조기 졸업이 가능한지 또, 조기에 졸업하려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들 수업이 언제 제공되는지 등등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을 일찍 졸업할 경우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조기 졸업



하는 만큼 학비, 기숙사비, 식비, 교과서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더 일찍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동기들이 아직 대학에 있을 때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직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을학기를 마치고 졸업한다면 12-1월부터 직장을 구하게 될 텐데 이때는 고용시장에서 구직자 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

또 다른 장점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구하지 않는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하거나 자신만의 모험에 도전하기도 한다. 학업으로 인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 시절을 보낸 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좋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졸업에는 단점도 있다.

첫 번째는 용자금 상황을 더 빨리 시작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용자는 졸업할 때까지 상황을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조기 졸업을 하면 생각보다 더 일찍 돈을 갚아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학 시절 학업적 자유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보통 4년간 들을 수업들을 3년 안에 마치려고 한다면 흥미가 있어서 듣고 싶은 수업들을 수강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조기 졸업이 목표인 경우 이중 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추가 학위를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Westridge Chevron Hills Trail

웨스트릿지 체브론 힐스 트레일은 Beach Blvd.와 Gilbert St. 사이 Rosecrans Ave. 선상에 있는 Ralph B Clark Regional Park 건너편 야구장(사실은 이 야구장도 공원의 일부이다)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으로 비교적 걷기 쉬운 코스이다.



야구장 원편에 난 길을 따라 산을 향해 오르다 보면 물탱크가 보이고 선인장 군락이 반겨 줄 것이다. 그러나 나무 그늘이 없어 반드시 챙이 긴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을 단단히 바를 것을 권한다.

하이킹이나 조깅, 달리기뿐만 아니라 자연탐사, 조류관찰, 도시 풍광을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물탱크까지 거리는 1.8마일 정도로 약간의 비탈길이 있으나 큰 문제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기 좋은 때라고 권하고 있으나 우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별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반려견과 함께 걸어도 좋은 곳이다.

자동차는 공원에 주차시켜도 좋으나 주차비를 부담해야 하며, 공원 밖 도로가에 주차는 무료이다.

■ 트레일 헤드

8800 Rosecrans Ave.
Buena Park, CA 90621

전문가들은 4월에서 9월이 가장 걷



▲ 웨스트릿지 체브론 힐스 트레일. 사진=타운뉴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